

N제 및 실모 사용법

7월입니다!

6모도 끝나고 다들 이래저래 약간 해이해질 시간인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기이니!!!

6모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9모 전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9모를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준비를 해야겠
죠?

지금부터는 어느정도 다들 기출을 어느정도 보시긴
하고 다들 N제와 빠른 친구들은 실모들을 시작할 텐
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설 문제들을 풀면서 실력이
급상승 해서!!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열심히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느 분이 해주신 말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ππ) 저 마인드가 제가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게 해
준 마인드 중에 하나인데 한번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서 인용(?)해보죠!

사설 같은 거 푸실 때 “선생님 전 아직 기출이 제대
로 안되어서...” 이러면서 사설은 피하고 기출만 주구
장창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기출만 봐서는 기출을 제대로 정리
할 수 없어요.

이미 내가 다 기출 분석하고 해체 해서 알려줬는데
그걸 계속 보면 뭐 그냥 수업 내용 복습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기출 보면 편하죠. 잘 풀리고. 보면 볼수록 새로운 거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당연하죠. 내가 다 해체해서
하나하나 다 떠먹여 줬는데 그게 안 풀리는게 더 이
상한 거 아닙니까?

기출을 털어내서 나온 태도, 뭐 행동영역이라고도 불
리는 거. 이걸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수능
에서 필요한 거지. 이 기출은 이렇게 풀어야 해. 강
사들 풀이 달달 암기하기만 하고

거기서 털어낸 내용들 재조합한 문제 나오면 멍... 하니
있지 마시고.

사설 문제는 이 기출에서 뽑아낸 태도들을 재조합해
서 만드는 문제가 많아요. 그걸 스스로 적용해봐야지
수능장에서 스스로 뚫어낼 수 있는거지. 백날 기출
만 봐봐요. 그 능력이 키워지나.

기출을 보는 거에는 몇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지금 시기에 가장 의미 있는 목적은 기출에서 얻을
수 있는 소위 “**행동영역**”이라고 불리는 태도를 뽑아내
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문이과 다 이해
가 가능한 수학으로 예시를 들자면 어떤 기출에서 정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다고 해요. 그럼 그 표
현이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며 어떤 행
동을 해야할 지를 정리해야 하는 거죠.

제 칼럼(?)을 읽으셨던 분이시면 위에 서술한 저 행
위를 “**생각도구**”를 뽑아낸다 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제 활용법

STEP.1 “기출 한번 더 확인해보기”

N제에서 할 공부법을 적용하기 앞서 먼저 기출에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강의가 되었던, 스스로 했던 간에 기출 보실 때 어떤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이 있겠죠?

A한 표현을 보면 ~~하게 한다. 소위 “**행동영역**” 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말이죠. 또 수학으로 예를 들자면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뭐 이런식으로 말이죠.

그럼 어떤식으로 연습을 해야 하나요?

평소에 보셨던 교재를 꺼내서

- (1) 스타워치를 켜세요. 타이머 아닙니다!
- (2)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그러나 **반드시 배운 대로 적용**한다는 생각,
더 나아가 이 문제를 본인이 **강사라고 생각하면서 해설을 한다**는 마인드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 (3) 저렇게 시간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진짜 배운 대로, 마치 강사처럼 해설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되시면 그 파트에 대해 준비운동이 완료된 것이죠. 안된다면 그 파트를 다시 재점검하시구요.

이렇게 기출을 정리하시면 준비 운동 완료입니다.

STEP.2 “N제에 해당 방식을 적용하기”

같은 방식으로 새로 보는 그 N제에 적용해보는 거죠. 이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제가 개인적으로 N제를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봤는데 한번 참고해보세요!

@N제 종류

- (1) **누가 봐도 무슨 기출인지 떠오르는 문항**
문제를 보자마자 “어 이거 ~~년도 ~~문항인데 가 바로 떠오르는 문제 겹데기조차 기출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걸 음... 개인적으로 별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2) **기출에서 뽑아낸 내용들을 재조합한 문항**
또 설명하기 만만한 수학으로 가져오는데 (국어, 과탐, 사탐은 제가 안해서..도 다 적용가능합니다!!) 기출에서 뽑아낸 내용들 있죠. 각종 기출에서 그걸 조금씩 가져와서, 출제자의 창의력을 더해서 재조합한 문항들을 말해요. 사실 유명한 사설 문항들은 대부분 이런 축에 속하는 거 같습니다.
- (3) **기출에서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 새로운 문항**
논술 문항에서 가져온 경우도 있고, 대학 수학 경시대회 등등 교육청, 사관, 평가원에서 한번도 출제되지 않은 문항이 있을 거예요. 이걸 기출 분석을 하는 목적 중에서 **“개념을 알고 있고, 그걸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능력”** 을 기출 분석 시 잘 했다면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어렵죠... 이미 각종 수능 강의들이 기출분석이 끝난 결과물을 떠먹여주니까요. 그런 학생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젠 N제를 어떤식으로 활용할지 다음장에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실력을 가장 많이 향상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건 바로 (2), (3) 에 해당하는 문제들일 거예요! 저런 문제들을 푼다는 전제하에

아까 STEP.1 기출에서 했던 그대로 적용을 하는겁니다

스탑워치 재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그러나 마치 강사처럼 해설강의를 본인이 한다는 마인드로, 제대로 배운 걸 적용하면서

이런식으로 해서 바로 풀리는 문항도 있고, 안 풀리는 문항도 있을겁니다.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본인이 쓸 수 있는 도구는 최대한 다 활용해보세요.

그래도 안 풀리는 경우라면 저의 경우는 일단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다시 다음 진도를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점차 본인이 **배운 도구들을 사용하는 능력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경험치가 쌓이게 되죠.

어느 정도 다음 문항을 푼 후 다시 아까 표시해 둔 못 푼 문항을 STEP.1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가면서요. 그러다 보면 쌓인 경험치로 인해 풀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 때에는 과감하게 답지를 봅니다.

그리고

- (1) 내가 무슨 생각을 못하고 놓쳐서 못 풀었지
- (2) **그럼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어떤 표현을 보면 무슨 행동을 해야 이 문항을 풀 수 있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설지와 문제를 보면 되죠!

이런식으로

- (1) 본인의 생각도구를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 (2) 새로운 문항에 대한 경험치를 늘려서 낯선 문항도 풀어내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이렇게 해야 기출에서 배운 도구들을 제대로 적용해서 비로서 어느정도 기출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문제푸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장에서는 실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모 활용법

실모는 N제의 문항을 한 시험지에 모아 제한 시간 내에 푸는 걸 연습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경험이 수능장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무턱대고 바로 몇분 시간재고 푸시지 마시고 과목별로 5회분씩만 (2과목은 어떻게 해요? 이러면 당해 본 교육청, 평가원 더프, 월레고사라도 $\pi\pi$) 위에 N제 학습법처럼

- (1) 스태프 위치 재고
- (2) 본인의 최대 속도로 그러나 최대한 배운 대로 적용하는 마인드로

전체 세트를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말고 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못 푸는 문제가 있을 텐데 N제 학습처럼 본인이 쓸 수 있는 도구를 다 써도 안되면 바로 넘기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저렇게 과목별로 5회분 정도 하신 뒤에

제대로 제한 시간 두고, OMR 카드도 두고 해서 실제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거죠.

저런식으로 제한 시간 내에 보실 때에는 **막히면 바로 바로 넘기는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최대한 제한 시간 내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그리고 **틀린 문제**의 경우

- (1) 실수로 틀린 것
- (2) 시간이 없어서 아예 읽어보지도 못 한 것
- (3) 건드려 보고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는 다 썼는데도 못 푼 것

정도가 있을 텐데요.

@실수한 것

실수한 것의 경우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한번 실수한 문제들만 노트에 적어보세요. 문제를 다 적는게 아니고 코멘트 식으로요. 무슨 계산을 잘못해서 틀렸다. 확통의 어느파트에서 뭘 안 세서 틀렸다. 이런식으로 **실수노트**를 작성해보세요. 모이다 보면 아마 본인이 하는 실수가 반복된다는 걸 발견할 거 같아요.

@내가 가진 도구로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것

이건 위에 N제에서 안 풀린 문제와 동일한 태도로 문항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실모도 결국 N제의 문항을 모아 놓은 거니까요

여튼 지금부터 해서 성적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니까 다들 열심히 하시구요!!
제 이 조잡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